

SPRING

2020

# 하늘꿈중고등학교 봄소식지



하늘꿈중고등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2003년 개교)

##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정치, 교육, 사회, 경제, 외교 그리고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찾기 힘듭니다. 과거 어느 시대나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성장해 왔음을 역사는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위기가 국내외적으로 밀어닥치는 형국인데 많은 이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에 밀려드는 위기의 파도가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느끼는 위기의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지금 설정하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방향성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은 나빠다 해도, 방향이 옳바르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17년째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북한의 실상은 그 자체가 암흑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사랑의 실재를 깨달으면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고 강렬한 빛으로 변하여 발한다는 사실도 17년째 확인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살던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을 때 발산하기 시작하는 긍정에너지는 북한의 복음화라는 방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꿈학교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이 에너지를 응축하여 통일의 때에 북한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에너지와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꿈학교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북한의 복음화’라는 소망을 끝까지 품고 또 점검하며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꿈 학교장 임 향자

## 서문교회 이웃사랑사역위원회 탈북청소년지원부



< 서문교회 이웃사랑사역위원회 탈북청소년지원부 생일파티팀 >

###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문교회 장로이며 통일선교부 부장 유동휘입니다. 서문교회 이웃사랑사역위원회(이하 사역위원회) 탈북청소년지원부에서는 매달 하늘꿈학교에 생일파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서 북한 분이로 6.25 전쟁 통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자연스레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많았고, 교회 내에 통일이나 북한 관련 사역을 자처했습니다.

### 하늘꿈학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우리 교회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길 무렵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는 성도님들의 뜻이 모여서 사역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하늘꿈학교를 잘 알고 계신 박인국 장로님, 한진환 담임 목사님 등에 의해 하늘꿈학교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역 위원회는 탈북청소년지원팀, 장애인지원팀, 불치병환자지원팀 등 분야를 나누어 교회가 돕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 HAPPY



<서문교회 유동휘 장로님>



<2017년 생일파티>

## 특별히 학생들에게 생일파티를 해주시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향자 교장 선생님께 ‘하늘꿈학교에서 어떤 일을 저희가 도울까요?’ 질문은 드렸더니 북한 아이들이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점심 식사와 생일 케이크 그리고 생일 선물과 생일 카드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달의 생일인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던 일이 벌써 3년을 넘었는데, 지금은 하늘꿈 학교에 오면 우리를 먼저 반겨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 3년간 거의 매달 학교를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을 저희가 한 번 이상은 축하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잘 다가오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저희를 낯설어하지 않고 먼저 와서 반겨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생일 카드를 못 받아 봤을 것 같아서 쓸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데 받는 아이들도 좋겠지만 쓰는 저도 은혜가 큼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북한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점심시간 전에 오셔서 30분 정도 늘 기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30분 전에는 먼저 학교에 도착해 4층 기도실로 갑니다. 함께 오시는 분들이 학교까지 왔는데 봉사만 하고 가지 말고 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자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 파티도 중요하지만, 학교까지 가서 일만 하다 오는 것은 너무 아쉽죠. 하늘꿈학교는 재정, 봉사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해야죠.

## 장로님께서서는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생활총화 같은 것들이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 존엄이 무너지고,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더 큼니다. 또한 제가 하늘꿈학교에서 사역하기 전에 10년 이상 탈북 가정을 도왔는데 부모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바빠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통일은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일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꿈학교가 북한 부모의 부족한 자녀 양육을 대신하면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도 하니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당연히 교회가 힘닿는 한 열심히 열심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IRTH DAY





### 서문교회는 어떤 통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에게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을 합니다. 왜 우리가 탈북학교를 도와야 하는지, 주체사상은 무엇인지,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야 우리가 통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통일시대를 함께 살아야 하므로 10주 과정으로 통일 교육을 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는 통일 선교의 날로 지정해서 북한 음식도 나누고 특강도 듣고 합니다. 저는 통일 준비는 북한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세상에서 교회뿐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손이 있고, 따뜻한 손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특정 몇 명을 빼고는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 터전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았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맞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생일파티>

북한에서 아버지 생신에 바나나를 처음 먹어봤다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생일을 챙기고 축하를 받았던 고향의 문화를 북한 아이들이 계속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수고함으로써 실현해주시는 서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 고3 서정

하나님 아버지,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있는 한국 땅, 하늘꿈학교에 있습니다. 저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엄마는 지금 하나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찬양도, 빛도 없는 북한 땅에 있습니다. 저의 엄마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북한과 한국이 통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저의 고향 중국도 만져주세요. 지금 중국이 점점 이상한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북한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국을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아버지 그 땅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해라’ 한 것처럼 북한과 중국을 살려주세요. 자유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2 김태욱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에 오는데 도중에 중국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북한 사람을 팔고 배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남 북한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치유해주세요.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돌려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바라기는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 우리 속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고2 김광진

이 나라 한반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다른 정치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신처럼 대하고 정권은 주민들을 억압하며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은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으며 자신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돕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다 아시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루빨리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반도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던 100년 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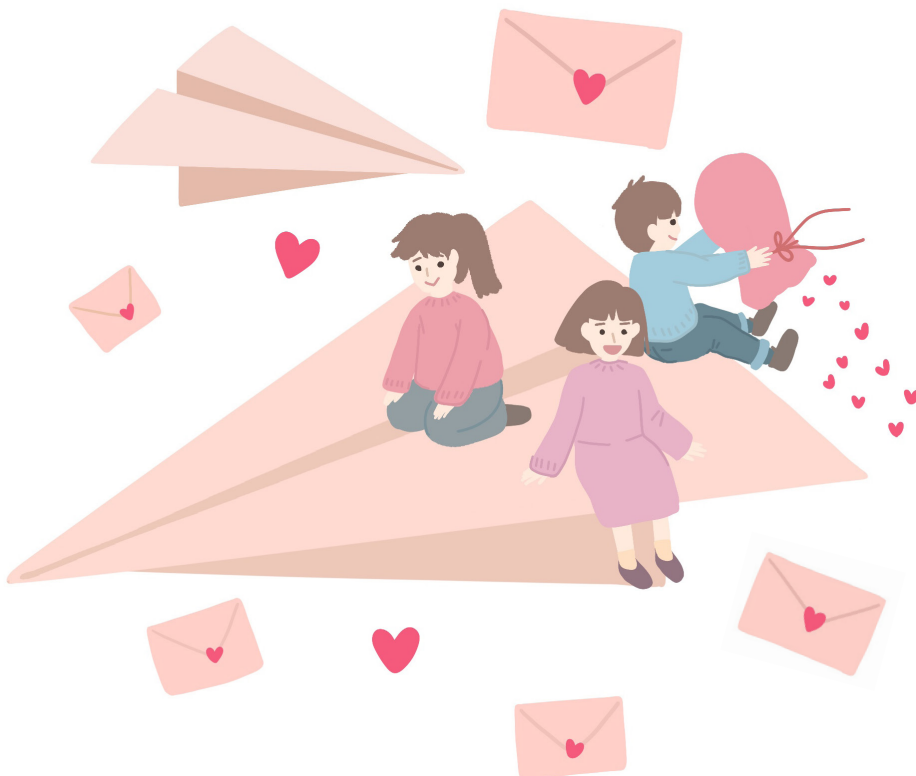
## 고2 이정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태어나고 18년이나 살아온 북한은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재자를 아버지, 수령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속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북한이 회복되고 우리 가족들, 친척, 친구 모두를 만나는 날이 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 한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고2 이은성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으로 수천 년을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북한 땅을 회복해주세요. 갈라진 한반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땅을 다시 번영 시켜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회복시켜주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

하늘꿈학교 11회 졸업생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생수의강 유스아카데미 수학교사 한옥진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학교 11회 졸업생 한옥진입니다. 상명대 수학교육과 재학 중이며 수지 선한목자교회 안에 있는 생수의 강 유스아카데미 기독교안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안남도에서 살았는데 여기 표현으로 중상층이었던 것 같아요. 끼니 걱정 없었고,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아버지는 제약회사에 다녔었고, 중국에 살던 외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중국에서 잠시 일을 해서 돈을 버셨기에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탈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탈북 이유가 궁금하네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저에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풀하우스 이런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콩닥콩닥했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다가 보위부에 들킬까 겁나서가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남한의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었고, 하다못해 여주인공 오빠들은 왜 그렇게 멋있는 건지 남동생보고 오빠로 태어나지 왜 동생으로 태어났냐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에서 알려주는 남한과 실제 남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네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지는 못했어요. ‘왜 북한은 우리에게 남한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했는데 북한의 교육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낀 부분이 이것이에요. 한국은 독서를 강조하며 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북한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낀 어려움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드라마 보면서 한국을 많이 갈망했고 도착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이 시작되면서 교통수단 이용하기, 은행 업무 보는 것 등 배워야 할 것이 태산이었고 어려웠어요. 북한에선 은행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죠. 그런데 한국은 장학금도 은행 계좌를 통해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도 은행을 통해 이체하니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4 하늘꿈 감사의 밤 고3 단체사진>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건가요?**

재미있게 봤지만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 했어요. 어머니가 중국에서 돌아오고 저희 남매에게 탈북 결심을 말씀할 때까지는요. 저희야 부모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죠. “어머니 저는 북한체제가 마음에 드니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하신 후에 브로커를 통해 저와 동생이 탈북했고 아버지는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감옥에 잡혀가셨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저 아빠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혹시 한국에 오신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다행이죠. 북한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생활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요. 물이나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남북의 경제적 차이는 크죠. 다시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전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탈북을 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으니 다 좋다고만 말하기도 힘듭니다.



<2014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과>

**하늘꿈학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저는 북한에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여기로 말하면 특목고 같은 일종을 나왔고 그래서 공부는 자신 있었어요. 대입도 ‘자기소개서 뭐 쓰면 되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시 시기가 되었고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하늘꿈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침 하나원 동기였던 친구도 다니고 있어서 큰 고민 없이 하늘꿈학교에 왔던 것 같아요.



<2014 여름 방학식 때 시상식>



<2014 수학여행>



<2014 졸업여행 찬양인도>



<2014 수학여행 동생과 함께>

### 하늘꿈학교 첫인상이 어땠나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처음 학교를 방문했는데 입학 면접도 보기 전에 월요 채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부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간증하는데 ‘중국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하늘꿈학교 와서 회복되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이 허름하고 초라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저는 면접 보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이 학교 다녀야겠다 결심했어요.

### 하늘꿈학교 첫인상이 좋았으니 학교생활도 즐거웠겠네요.

아니요. 저는 북한에서 공부를 그래도 나름 잘했으니 한국에서도 잘할 거로 생각했는데 첫 시험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답을 거의 쓰지 못했거든요. 공부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위궤양이 오고 그러면서 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고 숨고 싶기만 했어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잠시 휴학을 권하시더라고요. 휴학을 했을 때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계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녀봤는데 공부를 안 하고 살기는 힘들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너무 힘들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에 돌아왔는데 예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 문제는 산더미인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쓰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일 저녁 30분씩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기숙사에 올 차비도 없을 정도로 궁핍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해서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시며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일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이 연결되기도 했고, 공부도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하나님에 대해 처음 들은 곳이 북한이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어머니께서 중국에 계실 때 복음을 접하셨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면서 저와 동생, 친지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죠. 그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면서 탈북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라서 처음에는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죠. 교회 가면 매일 듣는 이야기가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죄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살면서 크게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 동생한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죄스럽고 미안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생각에 이르자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펄펄 울었죠.



&lt;2014 고3반 제주도 여행&gt;

### 얼마 전에 하늘꿈학교로 교생 실습을 왔었죠?

네. 저는 언젠가 북한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입니다. 교생 실습을 통해 배우는 입장이 아닌 가르치는 입장으로 북한 학생들을 대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일반 학교에 교생 실습 나갈 수 있었습시다. 하지만, 하늘꿈학교로 왔죠. 아직도 첫 출근 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졸업생으로 선생님들께 사랑만 받으려 갔었던 학교인데, 선생님이 되어 가려니 저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국 학교에서 실습 받을 걸 꿈이 컸었나 후회도 되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르겠다고 찾아와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싶은 것이 잃어버린 제 안에 있는 순수함도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 꿈이 북한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통일되면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갈 거고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북한이 얼마나 못살고 자유가 없는 나라인지 깨닫겠죠. 그럴 때 새로운 세대가 북한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가겠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니 자신의 나라와 고향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받은 사상적 세뇌를 깨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lt;2014 감사의밤 위십 연습&gt;

###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의 고향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못해서 경쟁에서 지는 것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북한 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알지 않냐고, 한국에 있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내 마음에 가까이 있지 않냐고. 그 땅을 위해 미리 탈북민들을 한국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냈으니, 삶이 힘들어도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 감사하다는 한옥진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졸업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



## 하늘꿈중고등학교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2부

“세계관(世界觀, worldview)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진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입니다.”(Walter Wink, 1935-2012)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하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이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2019년 2학기부터 정규 시간표 내에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개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하늘꿈학교 역사와 비전에 대한 강의를 소개합니다.

### 하늘꿈학교 역사와 비전

### 강사-교장 임향자

1994년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고 식량부족과 함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前)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가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북한의 현실은 비참했고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량을 늘어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이들을 ‘꽃제비’라 불렀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기 못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동식 목사님은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 한국의 작은 선교 단체에 재정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아이들을 보살피기 힘들었던 김동식 목사님은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시고 몽골 루트를 개척하여 탈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목사님이 개척한 몽골 루트는 3,000명이나 더 탈북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식 목사님은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포섭된 탈북자에게 유인되어 납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을 위해 구명 운동을 펼쳤지만, 모진 고문과 협박을 당한 목사님은 북한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모진 고문에도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았던 대쪽 같은 목사님을 기억하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을 향해 순결한 김동식 목사님의 사랑은 2003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늘꿈학교를 개교하게 된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lt;2003 하늘꿈학교 개교식&gt;



&lt;하늘꿈학교 1회 졸업생&gt;

목사님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 고아들은 그렇게 하늘꿈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을 빌려 6명의 선생님과 6명의 학생이 2003년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교회를 돌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담임 목사님을 만나 하늘꿈학교를 설명하면, 공감하고 선뜻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어떻게 북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한국에 있을 수 있냐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하늘꿈학교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하늘꿈학교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힘들지만,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lt;2010 하늘꿈학교 교실&gt;



&lt;2010 하늘꿈학교 수업&gt;

학교를 세우고 교육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꽃제비였던 초기의 하늘꿈학교 학생들은 살 집도 필요했습니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이 필요했기에 가정집을 임대받아 부모가 되어줄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을 살게 했습니다. 하늘꿈학교의 가정형 기숙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거짓말, 도둑질은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었던 아이들에게 엄마 혹은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늘꿈학교가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이 남은 곳은 길이 되었고, 지금은 하늘꿈학교 뒤를 따라 많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lt;2004 기숙사 도배&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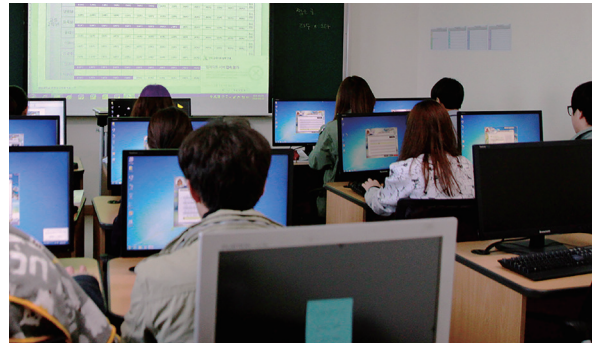


&lt;2010 기숙사 거실&gt;

2014년 기적 같은 선물이 하늘꿈학교에 찾아왔습니다. 하늘꿈학교가 지금의 학교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중1 학년부터 고3 학년까지 6개의 반과 예체능실, 도서관, 그리고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세미나실도 있는 지금의 교사(校舍)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음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학교를 처음 개교할 때는 이런 건물에서 공부하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2014 신교사>



<2016 컴퓨터 수업>

환경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18년이 지나는 동안 하늘꿈학교를 거쳐 간 북한 학생은 500여 명이 넘으며 그중 200여 명은 졸업장을 수여 한 정식 하늘꿈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으로 진학했고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취업했다며 음료를 사 들고 학교로 찾아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교사, 대학원등 하늘꿈학교 졸업생이 진출한 분야도 다양합니다.

저는 오래전 선교사를 훈련하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어떻게 북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한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셨고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순종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그렇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더니 이제는 통일이 되면 스스로 고향을 살리러 가겠다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되어 고향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학생, 건축가가 되어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학생, 의료인이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학생들이 통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꿈학교의 비전입니다. 통일되었을 때 무너진 북한 사회를 주님의 뜻대로 재건하는 일을 하늘꿈학교 졸업생들 손으로 하는 것. 하늘꿈학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깨달으셨길 믿게 해주십시오. 또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땅에 오게 된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북한 회복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2020 리더십 캠프 학생 간증문 중 일부>



## 비전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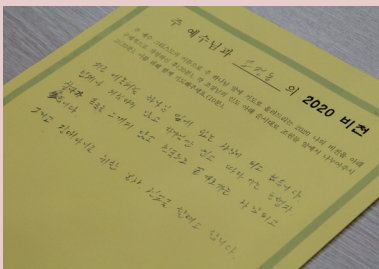


하늘꿈학교는 매년 새해 첫 시간을 재학생, 졸업생과 함께 신앙 캠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졸업생은 비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꿈학교 졸업 후, 매일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더 듣지 않게 되고, 매주 갔던 교회도 대학생들이 바쁘다는 나름의 핑계로 한번 두번 빠지면서 졸업생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학교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함을 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고민 가운데 그들을 위한 캠프를 기획 했습니다.

비전 캠프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리더십 캠프와는 다르게 비교적 소수의 졸업생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너무 갈급했던 졸업생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는 캠프였습니다. 첫 순서부터 뜨겁게 찬양하는 졸업생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들은 학교 졸업하니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많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하늘꿈학교는 자신들에게 학교가 아니 집이었다면서, 졸업생들은 각자 말 못 할 고민을 하나둘씩 가슴에 담고 캠프 내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곁에서 그들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나눔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텐데, 졸업생들은 캠프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포기한 이야기 말고, 버티고 이겨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게 계속 기도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아론과 훌처럼 우리 졸업생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아론과 훌이 되어 하늘꿈학교 졸업생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캠프 영상 바로가기

## I. 신앙 PART

### 하늘꿈고등학교 교육의 기초

#### 리더십 캠프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새문안교회 수양관에서 4박 5일 리더십 캠프를 열었습니다. 새해 소망과 함께 각자의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서 받은 은혜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하늘꿈학교 학생들 마음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 비전 캠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늘꿈학교 교직원과 졸업생은 가평 오륜 비전빌리지에서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재충전을 위한 심를 누리며, 졸업생과 선생님은 오랜만에 깊은 교재도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캠프에서 받은 은혜로 올 한해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 II. 지성 PART

###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리더십이 되기 위한 노력

#### 겨울 방학식

2019년 2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치고 하늘꿈학교는 방학식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동안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이 제일 걱정인 선생님들의 마음을 학생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 졸업식

2020년 1월 23일 하늘꿈학교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고3 학생들은 하늘꿈 울타리를 떠납니다. 지금껏 학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나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이 찾아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III. 인성 및 건강 PART

###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 하늘꿈 감사의밤

2019년 12월 14일 많은 분들이 하늘꿈학교 1층 채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꿈 감사의 밤에 참석하셔서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고함을 생각하며 목놓아 부르는 찬양에 많은 분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셨고, 학생들 또한 그분들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IV. 진학, 취업 PART

### 내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준비하며

#### 졸업앨범 사진 촬영

하늘꿈학교 학생 대부분은 학사모 쓰고 찍은 졸업사진 한 장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행여줄 수 없었는데 오래 전부터 학교를 사랑하시고 후원해주시던 한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올해는 제대로 된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 3학생들의 학사모 쓴 모습이 너무 근사합니다. 귀한 추억을 선물 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공지사항〉

2020 하늘꿈학교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4세에서 25세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북한이탈청소년)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사진(3\*4 반명함판) 2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자료(검정고시합격증, 학력확인서, 학력인정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하늘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입니다.

교육청 학력인가 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는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하늘꿈중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및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므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절차



### ▷ 기도해주세요

1. 하늘꿈학교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졸업한 고3 학생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대학,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주의 보혈의 피로 하늘꿈학교와 학생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후원자명단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후원자 명단>

## <개인후원>

강 건 강경인 강구영 강구영 강금봉 강대용 강문호 김은애 강보경 강선영 강선희 강수진 강윤모 강은산 강은주 강지원 강진홍 강진희 강태영 강홍재 경순미 경순미 고남숙 고문주 고선옥 고순애 고애순 고연희 고한숙 고영진 고원복 고준호 고차원 고훈희 공성원 공영환 권원섭 권태에 권희령 권경희 권금숙 구효민 권삼영 권영미 권윤옥 권윤주 권은숙 권익환 권진희 김길동 김강석 김건철 김경곤 김경미 김경옥 김경의 김경이 김경준 김경하 김경현 김경환 김경희 김계자 김고운 김교식 김규미 김근희 김금숙 김기태 김다인 김대열 김덕수 김동섭 김동현 김만희 김목화 김묘선 김무수 김미경 김미나 김미라 김미선 김미자 김민규 김민숙 김민정 김민지 김민현 김 별 김보경 김보연 김상현 김상현 김상환 김서연 김선중 김선희 김성균 김성미 김성식 김성영 김성은 김성현 김세정 김수민 김수정 김순복 김순애 김순정 김승범 김신애 김아영 김여환 김연중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채 김영환 김영희 김예은 김옥자 김용미 김유라 김유리 김은경 김은덕 김은란 김은희 김인숙 김인애 김일권 김일희 김재현 김진기 김정미 김정미 김정진 김정환 김정현 김정호 김중희 김중훈 김주민 김주연 김주희 김준호 김준희 김지근 김지선 김지수 김지은 김진숙 김창석 김창진 김춘미 김충태 김태범 김태연 김필수 김필름 김하림 김현경 김현정 김현주 김형애 김형준 김혜경 김혜인 김호성 김효진 김훈성 김훈숙 김희연 김희정 나 옥 나은선 나현정 남광우 남궁승 남궁행 남기석 남소영 남정희 노금자 노상근 노재열 도태우 라승남 라주영 류극희 명지옥 문수정 문윤선 문윤태 문채은 문초비 문형석 박경희 박근양 박금희 박금희 박기완 박나래 박난희 박동소 박라영 박미숙 박미영 박민주 박민호 박범도 박선여 박선영 박성산 박성숙 박성은 박성희 정일환 정주영 박성희 박세정 박세종 박세호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순미 박신영 박양준 박예지 박옥순 박유진 박은숙 박은영 박인숙 박재원 박정자 박정희 박종영 박종진 박주향 박찬수 박찬정 박찬희 박천희 박하리 박현선 박혜영 박호준 박효정 방효은 배경자 배민철 배선애 배연옥 배재범 배정인 백기범 백승미 변창수 서동민 서신덕 서영옥 서은광 서을주 서정숙 서창오 선목수아 성시용 성시는 성재우 손경연 손민영 손영환 손정원 손주호 손혜경 송경원 송금상 송미화 송영훈 송예진 송은주 송재원 송준옥 송한준 송현선 송현석 송현혜 유성혁 신기루 신미령 신민우 신석봉 신선원 신성순 신수지 신숙희 신승일 신윤미 신재경 신현주 신현호 심경희 심보라 심우정 심재하 심현식 안상미 안성숙 안연희 안영민 안종성 안진규 안진화 양동훈 양승달 양영준 양유성 양윤석 여인목 장경숙 연윤주 염선아 오미성 오민아 오민택 오상운 오용택 오유경 오은수 오일영 오정혜 오찬석 오화봉 옥승란 우선숙 우현정 원두연 원희석 위영태 위정현 유영준 유성은 유아를 유유만 유은희 유의동 유지영 유지희 유지희 유현숙 윤경아 윤광무 박혜경 윤동일 윤미선 윤미희 윤상희 윤여옥 윤용환 윤주환 윤지강 이건용 이경렬 이경옥 이경임 이경화 이경희 이규정 이규행 이금숙 이금순 이기숙 이낙영 이남혜 이능경 이두완 박미란 이명현 이문기 이문종 이문희 이이미 이민근 이민옥 이병일 이부길 이상미 이상희 이선아 이선자 이선희 이상국 이상옥 이상우 이상후 이수화 이숙향 이순구 이슬기 이승구 이영란 이영훈 이예은 이예진 이완준 이원미 이원순 이유정 이윤주 이은선 이은정 이은주 이인화 이창로 이재경 이재동 이재영 이재훈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임 이정현 이정희 이준필 이종경 이종원 이종호 이주연 이지에 이지은 이진규 이진숙 이창수 이철용 이철용 이충석 성명아 이충옥 이태만 이학숙 양영숙 이한나 이현숙 이현숙 이혜숙 이효순 이후남 이훈희 이희라 이희린 이희순 이희영 이희천 인지연 김정태 임경아 임다솔 임석원 임여진 임영숙 임영희 임유라 임윤아 임 은 임은주 임재경 임향자 임현주 임형록 임혜정 장경란 장경숙 장경애 장귀옥 장성옥 김춘희 장순득 장우혁 장윤혜 장익진 장지선 장진실 장한나 전계화 전동기 전성이 전소현 전수정 전유화 전이은 전효진 정경란 정길아 정동련 정동수 정미선 정미선 정미희 정민호 정병운 정성운 정소정 정시영 정연양 정요한 정용섭 정윤경 정은희 정 인 정재한 정재훈 정주영 정진곤 정창우 정행자 정현준 정현강 정희경 정희석 제갈민정 조명희 조명의 조반을 조상준 조성라 부성범 조성민 조성백 조성희 조연행 조영광 조영란 조오채 조윤경 조재숙 조정희 조진희 조찬영 조 한 조향선 조현옥 조혜련 조혜숙 조혜원 조희준 주미령 주민선 주우진 주의숙 주혜정 강영환 지인애 진미현 진희주 차은경 차충선 채경련 채수련 천향숙 최대환 최란규 최미옥 최민수 최민호 최병후 최선미 최성영 최성이 한재희 최성일 최수는 최숙희 최안나 최영나 최영순 최영환 최옥수 최윤정 최은실 최은주 최익진 최진선 최지연 최진영 최철호 최태운 최형숙 최홍준 탁은정 탁지혜 태원우 편석범 하세호 하유진 하은희 하진희 하창학 하 한 서승희 하혜숙 한규화 한민영 한상열 한영림 한영희 한인란 한정희 한진용 한준자 한현진 한혜미 함재연 허숙자 허순영 허안자 허영미 현상민 호민지 홍가은 홍경자 홍기옥 홍요섭 홍원표 홍은주 홍지선 황광옥 황록경 황민선 황인자 황정은 황정희 익 명

## <단체후원>

(주)에이앤비컨설팅 (주)니코글로벌 (주)티아비비코리아 100주년기념교회 가락동부교회 가온미디어(주) 강서침례교회 건국대학교병원통합 노동조합 광성교회청나비교회 국민은행 성남지점 권선제일교회 글로벌엘림미션 기독교대한감리회신촌교회 기쁘교회 남산감리교회 내동교회 농협회사법인(주)다비죽종 능곡제일교회 대원감리교회 더프레임종합건설 돈암교회 동송교회 드림교회 미아중앙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북한 회북감리교회연합 사랑하는교회 산성교회 삼성교회 상계광림교회 새길교회 총 여성교회 새빛전원교회 서문교회 서울대학교AIP 52기 선단화 목교회 선한목자교회 광남속교회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성남제일교회 성덕사회복지센터 성지내 과이비인후과 세신교회 시흥하늘교회 신천교회 신촌장로교회 아들람교회 아비코전자(주) 아산병원진단검사의학과 여주중앙감리교회 20 지회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예수님의사람들교회 예수뿐교회 오펜교회 4권사회 옥토교회 우리들교회 참내과 일산광림교회 정동제일교회 종교교회 주님사랑교회 중국교회 지구촌교회 통일선교회 진남제일교회 잠빛교회 창일 루터교회 창일교회 화기은&안미라구댄스 탐동교회 하늘가족교회 한나회 한빛교회 할렐루야교회 통일선교 함께지어가교회 행복나무교회 헤브론교회 혜성교회

## <물품후원>

겔스에이 김영남 김현도 다비죽종 문윤선 박리부가 박사민 사랑하는교회 삼성생명 서문교회 선한목자교회북한선교국 선한목자교회선교위원회 성남월드휴먼브릿지 송연 아람봉사단 안에스드 은누리교회무릎기도회 천영세 최숙희 최유정 한국증권금융 허순영

하늘꿈중고등학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름은 실지 못했지만, 학습 봉사, 주방 봉사 등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위 후원자 명단은 후원금 계좌에 입력된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후원 관련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늘꿈학교로 연락 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 (사)좋은씨앗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신 개인 및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늘꿈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방법>

### 1. 하늘꿈 프렌즈(자원봉사자)

주방 봉사, 1:1 과외 지도, 행정 봉사 등 (하늘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www.hdschool.org](http://www.hdschool.org)에서 신청. 요청 시 봉사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2. 후원

정기 후원(교육비, 급식비, 장학금), 물품 후원(식품, 의류, 도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기념일 후원 등  
후원계좌\_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 좋은씨앗